

유럽·美 공장 연쇄 폐쇄 vs 삼성·현대차 1~2일 가동중단 韓 기업 방역경쟁력 ‘세계 최고’

포드 발렌시아 공장 1주일간 폐쇄
美 GM, 지역별로 재택근무 권장
국내 공장, 체온 측정 등 미연 방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공장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산업계는 일찌감치 대비한 덕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부터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공장을 1주일간 폐쇄하기로 했다. 전날 근무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포드는 일단 직원 전체를 격리하고 방역 작업에 나섰다. 연간 40만대 이상을 생산하며, 포드의 해외 생산 기지 중 가장 크다.

폴크스바겐 슬로바키아 공장도 확진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가동을 중단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문을 닫는 공장이 빠르게 확대 중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장 4곳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냈다. 페라리도 마라넬로와 모데나 공장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람보르기니도 산타가나 볼로나 공장을 25일까지 닫기로 한 상태다.



폴크스바겐 슬로바키아 공장. /폴크스바겐

그 밖에도 영국에 있는 재규어랜드로버를 비롯,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 사업장들은 조만간 공장 폐쇄를 진지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유럽 공장들이 잇따라 셧다운에 나선 이유는 현지 코로나19 확산이 견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5일까지 유럽내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가 2만5000명에 달하고 스페인이 약 8000명, 독일이 6000명, 프랑스가 5000

명 등이다.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불과 2~3주만이다.

유럽만이 아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부 공장들이 생산 중단을 논의 중이다. GM이 이번주부터 지역별로 재택근무를 권장한데 이어 4월달 가동 중단도 고려중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 공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거의 완벽히 극복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는 ‘셧다운’ 공포가 업계를 흔들었지만 일찌감치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적극 실행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기업들은 1달여간 적지 않은 확진자를 확인했면서도 방역을 위해 1~2일간만 가동을 멈춰세웠다.

사업장들은 초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열화상측정기를 통해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으로 감염 위험군을 원천 차단했으며, 중국과 대구·경북 거주자나 출장자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송파구 아파트 하락세 한달 만에 2억원 ‘뚝’

고가아파트 대출금지, 코로나 영향
리센츠, 시세보다 3억 낮게 거래
거래량도 전달비 절반 넘게 줄어

서울 송파구 일대 집값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개월새 2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등장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와 함께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서다.

그중 송파구 아파트 이달 평균 매매가는 3.3㎡당 4092만원, 1854만원의 시세가 형성됐다. 매매가의 경우 전달대비 0.16%가 하락했으며 전세가는 0.18% 상승했다.

리센츠(전용면적 84.99㎡)는 17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1개월 동안 2억원이상 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잠실엘스(전용면적 84.97㎡)는 19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1억원에 거래됐다. 리센츠 아파트는 지난 6일 전용면적

84㎡가 16억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실거래가가 시세보다 3억원이 낮아 가족 간 증여 혹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판명된 바 있다.

재건축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장미1차 아파트(전용면적 82.45㎡)는 16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월 18억원에 거래됐다.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2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월 23억8000여만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모두 3개월 동안 1억원이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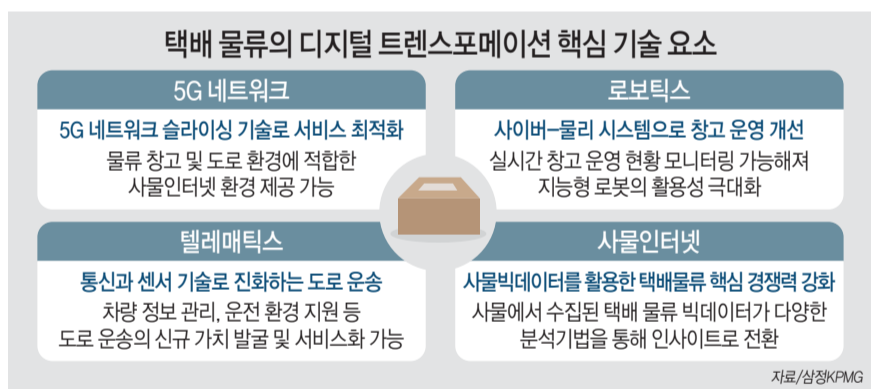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지난해 12월 매매 거래량은 467건을 기록했지만 1월 214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2월에는 287건이 거래됐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지난 13일 부터 확대되면서 이달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강남3구에서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

택배시장 영업의 악화... “돌파구는 ‘디지털화’”

평균 단가 하락 등 저조한 수익률
풀필먼트 강화 등 산업 장벽 무너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활용 경쟁력 ↑

국내 주요 택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8년 0.5%를 기록했다. 택배 물류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정KPMG가 16일 발간한 ‘국내 택배 산업 해법 찾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배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9800억원에서 2018년 5조 6700억원으로 연 평균 8.2% 성장한 반면 국내 주요 택배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4년 8.6%에서 2018년 0.5%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택배 시장은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생활산업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평균 단가 하락 등 저조한 수익률 높에 빠진 것.



국내 택배 시장 평균 단가는 2011년 2534원에서 2018년 2229원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폭 없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16년을 기점으로 국내 택배 업계가 사실상 치킨게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유통 기업들은 직배송을 강화하면서 물류 산업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산업 간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다른 산업 플레이어의 물류 시장 진출로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택배 시장 기업이 수익성 회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 요소로는 ▲5G 네트워크(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으로 운영 효율성 향상) ▲로보틱스(사이버-물리 시스템으로 물류 창고 운영 개선) ▲텔레매틱스(도로 운송과 관련된 신규 서비스 개발) ▲사물인터넷(사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택배 물류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사이버로 보는 견본주택 ‘청약 성적 양호’

현장관심 감소 우려, 상반된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 193.64대 1

최근 사이버 견본주택이 분양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제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어서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 신규분양 단지들도 청약 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견본주택 내부를 실제로 볼 수 없어 현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실제로 이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는 평균 193.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일에 건설업계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마감재 등 세세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화포레나부산덕천’의 경우도 가상현실(VR)로 제작한 유니트 정보와 세대 영상, 마감재 리스트 등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평균 88.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 수요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사이버 견본주택 대중화로 건설사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트래픽을 확장하거나 상담 인력을 기존보다 확대 배치하는 추세다.

예비 청약자들은 사이버 견본주택

을 통해 장소에 상관 없이 단지에 대한 분양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질의응답(Q&A) 등을 통해 1순위 조건이나 청약 자격에 대해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업계 전문가는 16일 “확실한 장점을 갖춘 신규 단지의 경우 굳이 실물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분양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현장의 경우 그만큼 분양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에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1714가구 중 5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노선 외에도 수인선 초지역(예정), 신안산선 초지역(예정), KTX 등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5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분양하는 ‘영통자이’ 59~75㎡ 653가구를 선보인다. GS건설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 1km 내에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영무건설은 경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B-9블록에서 분양하는 ‘시흥장현영무예다움’ 84㎡ 747가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현대중, 4000억 규모 선도함 건조계약

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 건조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총 4000억원 규모의 ‘울산급 Batch-II II 상설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총 6척의 3500톤급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 중 첫 번째 합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방위사업청과 ‘울산급 Batch-III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호위함을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4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신형 호위함은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500 톤으로, 최대 55km/h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4면 고정



현대중공업 울산급 Batch-III 조감도.

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 대비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양성운 기자 ysw@